



CONTENTS



- 04 의장 신년사
- 06 부의장 신년사
- 08 상임위원장 신년사
- 09 서구 이슈
- 10 결의문
- 18 의정 포토
- 24 구정질문 및 답변
- 30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33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처리 안건
- 34 2010년 행정사무감사
- 36 해외연수 후기
- 40 언론에서 보는 서구의회
- 42 제6대 서구의회 제1기 의원현황
- 44 전직 의장에게 듣는다
- 45 우리동네 이야기-가좌1동 주민센터 개청
- 46 2011년에 인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48 서구명소를 찾아서
- 50 녹청자도오지 사료관장 인터뷰
- 52 검단3동 작은도서관
- 53 공무원 한마당
- 54 자유기고
- 55 건강상식 10가지
- 57 중소기업 정보
- 61 의회방청안내 등

발행일 2011년 1월 (제28호)
 발행인 의장 김영옥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전화 032)560-4507~8 팩스 032)561-4336

“ 2011년 신묘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김영욱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아침 희망을 가득안고 붉은 태양처럼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기쁨이 넘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 속에 영광과 보람, 그리고 시련도 함께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제6대 서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가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결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구는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 중요한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물류기능 뿐만이 아닌 한강변 부럽지 않은 수변시설과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게 될 경인아라뱃길 사

업, 또한 서구의 자랑이자 랜드마크이며 구민의 휴식공간이 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교통의 불모지인 서구에 사통팔달의 역할을 하게 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그 외의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 도로 사업,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든든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의회는 민의가 살아 숨쉬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의 방향을 말씀 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辛卯年 議長 新年辭

첫째, 구민 위주의 열린의정을 구현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의 참 뜻을 받들어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중심인 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구민이 제기하는 문제와 지역 현안 사항은 바로 구의회의 문제인 동시에 구의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먼저 구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고 낮아진 의회 문턱을 통해 구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의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로운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은 구정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당초 계획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주요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구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으며 비판에 앞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정착 시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 시키겠습니다.

또한 구의원들의 정책개발 능력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세미나 포럼등을 통해 항상 연구하며 미래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안목을 키움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관내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에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한편, 저소득층 위기 가정의 생계를 위해 복지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회차원의 모든 노력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아 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과 차별 없는 교육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식재료 및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과 외국어 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외국어 교육특구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지원사업과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서구의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재가 찾아드는 서구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수도권매립지 문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 우리구의 현안사업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연장 반대 및 토지보상금 재투자는 구민 여러분의 환경권을 지키는 일이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야말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울러 가정오거리 투원시티사업 등 우리구의 수많은 현안 사업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저와 우리 구의원 모두는 금년에도 우리 서구가 세계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의정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고 구의회가 구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더욱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21세기 서구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새로운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 새 아침에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김영욱 올림

“
2011년 신묘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



인천광역시서구의회부의장
정일우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부의장 정일우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새롭게 출범한 제 6대 서구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구민 모두의 바람과 희망처럼 안정과 화합 속에 서구가 더욱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저희 6대 의원들은 서구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뛰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지난 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짓는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주경기장 터에서 인천시청까지 동료 의원들과 한여름 띄약벌에서 3보 1배의 투쟁으로 우리 서구민의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서구민들의 노력으로 주경기장이 다시 서구에 지어 지게 된 것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새해에도 우리 구민들이 보여준 저력과 노력, 그리고 정성만큼이나 보다 큰 꿈이 결실을 맺는 새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21세기 우리 서구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그것이 점차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경제자유 구역, 김단 신도시 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 건설 사업, 루원시티 조성사업 등 대규모의 국·시책 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경쟁력 향상은 물론 서구 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40만 서구구민 모두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주신 값진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리 서구의회는 변화와 혁신의 정립으로 열린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직무연수 및 각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정 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조 기능에도 충실을 기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신묘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지난 시름은 떨쳐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앞으로 구민여러분의 선택으로 구성된 서구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짝 피울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보다 알찬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월
인천광역시서구의회부의장
정 일 우 올림

辛卯年 副議長 新年辭



서구AG주경기장 건설 국비지원에 최선을

의회운영위원장
박 구

2011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많은 서구민들의 노력으로 주경기장이 다시 서구에 지어지게 된 것을 AG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 위원장으로서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주경기장 건설의 국비지원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더욱더 매진

기획총무위원장
문 현 주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일, 무겁고 많은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신묘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건설한 서구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

복지도시위원장
이 상 섭

구민여러분! 지난 2010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희망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구이슈

issue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12월9일 오전, 지난 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서울시, 환경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서구 백석동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경인항만공단을 항의 방문하였다. 또한 『김포지구 수도권해안매립지건설 및 운영사업 협정서』에 매립지 운영 중에 취득한 자산은 매립지 운영 관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수도권매립지에 재투자 계획이 선행되지 않는 한 절대 매립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는 안되며,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서구주민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사항이니 만큼, 경인아라뱃길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경인아라뱃길 사업처장은 서울시 매각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그만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자원공사의 난처한 입장을 전했다. 서구주민과 서구의회의 의견을 가감 없이 서울시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의문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중국의 엄청난 신장된 국력을 아시아와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로 다음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우리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

비록 중국처럼 20조원을 넘는 막대한 금액을 아시안게임에 쏟아 붓지는 못할지라도 인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의 문화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르고 세계에 인천을 알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TV를 통해 인천만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직접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도 인상적인 모습을 남겨야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당초 계획되었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으로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경명공원을 취소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2014년 아시안게임과 발맞춰서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관중이 걸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까지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길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대형 화물차가 다니는 10차선 차로 옆의 폭 1미터에서 2.5미터의 인도이며, 양 옆으로는 비닐하우스가 무질서하게 산재하였고 또한 장기간 공터로 남아 각종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첫인상의 중요성은 모두 주지하였듯이 이런 모습을 서구와 인천의 첫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리 대회운영을 잘하고 공연을 잘해도 좋은 인상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TV로 매일 주경기장 인근이 세계로 전파를 타게 될 것인데 주경기장의 인근에는 매립지와 주물공단이 자리 잡고 있어 더욱 경명공원이 조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명공원이 조성되는 위치는 아시안게임 이후에도 공항에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며 이로써 인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곳이다. 인천시 또한 이러한 경명공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눈 앞에 닥친 심각한 재정문제로 이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것을 아끼려다 큰 것을 잃는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천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경명공원을 추진할 적기임을 알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우리의 입장을 알린다.

“ 인천시는 경명공원 조성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

201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수도권매립지 토지 보상금 재투자에 대한 서구의 입장

우리 서구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에 위치한 지역으로 2014년 아시아 경기 대회 주경기장,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경인아라뱃길, 가정5거리 재생사업 등 대규모 국·시책사업을 통하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약 600만평의 세계 최대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함에 따라 1일 1,500여대, 약 16,0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어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구 전체지역이 쓰레기 수송 차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도로파손 등의 환경피해로 수십년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1990년 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김포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서(제8조 5항)를 통해 수도권 매립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약속파기를 밥먹듯하고 있다.

2004년 서울시는 공항고속도로 및 철도 매립면허권 일부양도로 71억원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일방적으로 가로채갔다. 2006년도에도 서울시는 검단하수 처리장 매립면허권 일부 양도로 39억의 보상비를 받았지만 이 또한 그러했다. 서울시의 약속파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협정서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토지의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소유자가 용도를 결정하되 쓰레기매립지 조성사업에 우선 사용」 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 대금 1,000억원을 서울시 일반회계에 일방편성하여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국책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필요한 수도권 매립지내 경기장(골프, 승마, 수영, 조정, 실외사격)의 건립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서구주민의 몫을 강탈하려 하고있다. 이는 우리 서구 주민이 가져야 할 돈을 서울시가 도둑질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다.

화(禍)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인천시가 자초했다.

서울시의 지난 두 번의 약속 파기에도 인천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 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얼마나 자존심 없는 행태인가? 그동안 서구와 서구민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다.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구채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년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 수수료 감면 등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개선 및 폐기물관련사업비의 지원과 관련 법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원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먹이며 우리 서구의 의견을 묵살해왔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서구민의 행복권을 훼손한 채 단물만 빼 먹으려는 서울시와 현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환경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환경부, 수도권매립지는 향후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서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힘과 동시에 경인아라뱃길 사업부지로 편입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1,400억(환경부 400억, 서울시 1,000억)에 대해 김포 지구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의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피해영향 지역인 서구의 문화, 복지사업에 투자하여 할 것이다.

우리 서구의회는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41만 서구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환경부, 서울시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내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강력히 반대한다!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 중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사업은 매립지내 1일 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1일 3,700톤의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권의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처리시설의 완공시점은 공교롭게도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16년의 이듬해인 2017년이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를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

선량한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공사, 환경부가 2016년 매립을 종료하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짓밟고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등을 운운하면서 호시탐탐 매립지의 영구사용에 혈안이 되어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라는 허울좋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겉으로는 친환경사업처럼 포장하여 건축폐기물 매립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 최대의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슬러지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들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의 목적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서구에 버리는 것으로 당연히 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일 것이다.

우리 서구 주민들도 환경정책기본법이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 동안도 하루 1,000대 이상의 폐기물 차량의 운송에 따른 비산먼지와 매립지 악취로 시달려온 우리 주민에게 이제는 하루 1천톤의 음식물 쓰레기와 3,700톤의 하수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를 참고 견디며,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온갖 오염 물질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지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 중대한 환경사업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타운’ 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시행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구 주민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우리 주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 서울시와 환경부에서는 41만 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하루속히 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백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우리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서구의회는 물론 지역내 전 사회단체와 41만 주민 모두가 연대하여 물리적인 저항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1.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2. 우리는 매 사업 단계마다 결사 항전할 것이다.
3. 우리는 설사 시설들이 완공되어도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4. 위 사항을 41만 서구민과 함께 반드시 지켜 수도권매립지가 주민의 품으로 영구히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2010년 12월 2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

세계최대의 쓰레기매립지에 1992년부터 쓰레기가 매립된 이후 우리 서구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며, 어서 빨리 매립기한이 종료되어 환경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드림파크’가 조성되기를 희망해왔다.

그간 서울시의 행태는 어떠했는가? 매립지 조성으로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익까지 챙겨가면서도 수익금의 매립지 조성에 대한 재투자나 인천과 서구의 주민들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 제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에 대한 협조요청 등에 대해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매립지 운영 수익금과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고도 당연한 것인데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서구주민과 인천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2044년, 나아가 영구히 하고자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울시는 당초 2016년으로 약속한 매립기한이 지자체별 소각장 건립과 쓰레기 분리수거의 사유로 반입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정변경’을 매립기한 연장의 이유로 들고 있다. ‘사정변경’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매립지가 조성된 후 20여 년 동안 우리 서구도 인구 10만에서 40만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고, 향후 도시계획상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더 이상 활용하기에 지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구의

또한 10년후 계획인구 70만에 달하는 명실공히 인천과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서구에 있어 수도권매립지는 최대의 장애물일 뿐이다.

서울시의 매립기한 연장 목적은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인가? 아니면 매립지 운영에 따른 수익이 목적인가?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공사의 주장대로 반입량 감소와 순환매립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립량 감소가 매립기한 연장의 이유라면 오히려 세계최대규모의 매립지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울 관내에 소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의 세계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사례로 추진할 수 있는 이유 또한 되는 것이며, 자가지역의 쓰레기는 자가지역 내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에 반드시 매립이 종료되어야 하는 것인데, 인천시의 대응은 적절한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 연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2016년에 매립기한 종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의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부지를 지금부터 마련하여야 한다.

2016년에 매립이 종료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인천의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인천도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처리를 의존하는 마당에 어떻게 매립종료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인천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는 더 이상의 매립기한 연장계획을 중단하라.
2.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은 약속대로 2016년까지이며, 이후에는 그동안 고통 받았던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라.
3. 인천시는 2016년 매립중단 이후 인천의 폐기물을 처리할 대체부지 확보에 적극 나서라.

2010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정포토



매립지기간 연장 반대투쟁 켈기대회

서구의회 의원들은 11월 1일 서구청 마실거리에서 열린 매립지 기간연장 반대투쟁 켈기대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호소 하였다.



인천시장 서구 의회 방문

송영길 인천시장은 11월 3일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서구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구 발전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다.



인천서구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개관식

서구의회 의원들은 11월 19일 인천서구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료관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서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 제 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서구의회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가좌1동 주민센터 개청식

서구의회 의원들은 12월 8일 가좌1동 주민센터 개청식에 참석하여 내빈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였다. 의원들은 가좌1동 신청사가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포토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의 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12월 8일 검단 컨벤션웨딩홀 뷔페에서 열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0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 사무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10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부서 별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10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소관부서 별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서구자원봉사센터 7주년 기념식

서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0일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서구자원봉사센터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시청 항의방문

서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3일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맑은환경 본부장을 만나 경인아라뱃길에 포함된 수도권 매립지 매각대금 처리문제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의정포토



의정포토



인천시청 항의방문

서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4일 인천시청을 방문하여 정무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처리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2010년 사회교육프로그램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12월 17일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간담회

서구의회는 12월 1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실시와 관련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의정포토



2010년 서구체육회 송년의 밤

서구의회 의원들은 12월 17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구 체육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구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2010년 서구청장배 탁구대회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12월 19일 동인천여중 체육관에서 열린 서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며 참가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 정신을 주문하였다.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구의회는 12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본 예산을 심사하였다.



구정질문 및 답변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요약)

홍순목 의원

1. 서구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대형공사 및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처하기 위한 구청장의 특별대책은?

- 구에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계자에게 소음, 공해발생 억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꾸준한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장의 대변역할을 수행하는 있는 “구민소통실”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문현주 의원

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체납액에 대한 처리대책 및 적극적인 감독, 행정처리 대책은?

-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하도록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축물임을 표기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2. 검암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지하철 2호선 고가철도 설치에 따른 소음 방지 대책은?

- 검암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변경할 수 없는 항목에 해당되는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지하철 2호선 고가철도 설치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예정임.

3. 기한부 민원처리가 반려, 취하, 보완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추진할 의향은?

- 현재 구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조정위원회’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4. 경인아라뱃길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자전거 및 인라인도로 개설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 경인아라뱃길과 아시아주경기장을 연결하는 도로는 2개 구간으로 1구간인 봉수대길 1.8km는 LH공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도로확장 공사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구간은 경명로 연희교차로에서 공촌사거리 0.5km와 서곶로 공촌사거리에서 아라뱃길까지 2km 총 2.5km로 이중 서곶로 1km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도시철도본부에서 병행추진하고 있으며 2구간에 미반영된 잔여구간 1.5km는 주변 사업여건과 연계하여 자전거도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며, 인라인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 도로상에 개설하기 어려움이 있어 개설을 고려치 않고 있음.

5. 우수보육교사 확보를 위해 2011년도 시행하는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추가 확대할 의향은? 아울러 보육시설 지도 점검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협회에 이관하여 추진할 의향은?

- 서구는 현재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직율을 최소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2011년부터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를 1인 월 3만원 기준으로 2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건의하신 연구활동비 추가확대는 향후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의 일부사무위임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은 불가한 사항이나 향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천환 의원

1. 가정동 중앙시장 가로등을 야간폐장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장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의향은?

- 구에서는 중앙시장 내에 보안등 설치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의 전기요금은 상인들이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수익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각 동 주민자치위원의 임명권자를 구청장으로 하는 방안과 주민자치위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의향은?

-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위촉하는가의 문제이기 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스스로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주민자치위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다른 민간단체 회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대로변의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은?

- 가정오거리부터 공촌사거리 구간 2.7km를 지중화하려면 1백62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사업비는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시와 구가 각각 2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2011년도에는 시비지원이 불가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움.



4.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 인천시에서는 고속도로를 지중화하지 않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권을 이양 받는 것으로 원점에서 재협약하게 되었으나 국토해양부에서는 경인고속도로가 감당하고 있는 물동량의 해소 방안에 대한 선행적 대책이 없는 이상 이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당기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는 차선책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우선 연안부두에서 청라지구 직선화 구간까지 시 재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여 경인고속도로의 물동량에 대한 분산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권을 이관받고자 계획하고 있음.

5. 루원시티 거주세대에 대한 치안문제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 서구는 현재 개발주체인 LH공사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제공과 안전 확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음.

6. 우리 구가 대표로 추진해왔던 ‘랑랑축제’가 중단된 사유와 대표 축제로 부활하여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 랑랑축제는 주민불편 및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분별한 축제 및 선심성 행사 지양 등을 이유로 시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폐지하게 되었으며, 서곶문화예술제 및 녹청자 축제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1. 서구 대기환경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 서구는 현재 관내 소재한 14개 대형사업장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 업체로 지정하였고, 이들 대상 업체들은 2012년부터 감축목표를 할당받아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고 매년 명세서와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받게 됨. 또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환경지도, 점검 규제 등에 대한 완화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박형렬 의원



2.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 서구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생육 실태 점검과 함께 병해충 예찰 및 시비요령 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태 숲 조성 목적에 맞게 관리가 잘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 생태 숲 조성 사업으로 우범화가 될 우려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동 자율방범대 등의 협조를 얻어 야간 방범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가현초, 가현중, 신현고, e편한 세상 아파트 주변 도로에 화물차와 대형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은?

- 이 도로는 염곡길 왕복 4차 도로로서 학교와 아파트가 접해 있어 주민이 불편하다는 구간은 약700m인데, 그 중 스쿨존 300m 구간의 차량 운행제한 속도는 30km이고 그 외 구간은 70km입니다. 구청에서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을 현장 확인한 결과 기준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주민의 불편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순석 의원

1. 가좌동 지역의 보건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보건분소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로 운영할 의향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 서구청에서는 그동안 문화·교육·복지 환경이 열악했던 가좌1동의 지역적 상황과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가장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방과 후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기능을 갖춘 독서실 운영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차후 동 주민센터와 주민대표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좌1동에 가장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분소 경우 서구에 보건지소의 추가 선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좌1동 주민센터 옛 건물1층에 분소사업에 준하는 방문보건사업과 건강상담, 금연 및 영양개선, 운동상담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병근 의원

1. 경명체육공원 조성관련 인천시의 전면재검토 방침에 대한 구청장의 대처방안 및 향후계획은?
 - 시에서는 이 공원의 규모를 당초 31만5천㎡에서 7만6천㎡로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이 공원은 주경기장 건설과 연계하여 주변경관을 고려할 때 꼭 추진되어야 하는 공원이므로 서구에서도 경명체육공원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2.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 향상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급여체계의 확립과 별도의 인건비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과 예산확보 방안은?
 -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센터별 월2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센터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지역공동체모금회를 통한 연계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전국 최우수기관 포상금마저도 9천만원 중 5천6백만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적정기준을 지침에 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음.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음.

3. 검암2지구에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보완문제는 이미 제1차 정례회시 구정질문 사항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 설해에 대비하여 미끄러울 때는 주차장 운영방법을 위쪽면만 개방하여 사용토록 하고, 아래쪽면은 탄력적으로 이동형 플라스틱 펜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음. 또한 주차장에 적사함 등의 시설제를 비치하여 주차장을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기사로 읽는 서구의회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개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1일까지 『제169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특히,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부서별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박형렬 의원, 간사에 이윤숙 의원을 선출하여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수정 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제5기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 백지화를 위한 인천시 대체 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다.



전·현직 의원 간담회 개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11월 1일 관내 음식점에서 전·현직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제1대 문기현 의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서구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해 전직 의원들과 제6대 현직의원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후배 의원들 간에 서구의회 의정운영방향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1대부터 6대 의원 소개 및 상견례가 있었으며 서구 의정동우회 회칙 설명 및 운영결과 보고 등이 있었다.

서구의회는 앞으로 지역현안 사항의 의견 수렴 및 해결, 지속적인 구정발전을 위하여 분기별로 전·현직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로 읽는 서구의회

서구의회 의원들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 참석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1월 25일 서구를 방문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 행사에 참석하였다.

송 시장의 서구 방문은 지난 7월 9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 건설과 관련한 간담회를 위해 서구청을 방문한 이후 2번째이다.

주민과의 한마음 대화 행사에 참석하기 전 송 시장은 서구의회 의장실을 방문하여 의원들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기간 연장 문제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구간에 대한 토지매각 대금의 활용 방안 및 아시안 게임 선수촌과 미디어촌 건설 문제 등 서구의 다양한 현안 사항의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170회 제2차 정례회』를 가졌다.



이번 정례회에 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서구의회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10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3,48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였으며, 20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21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각각 수정 가결 하였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원안 가결 되었으며, 서구청장이 제출한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이윤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기사로 읽는 서구의회

서구의회, 서울시청 및 인천시청 향의 방문

김영옥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서울시, 환경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2월 13일 서울시를 향의방문 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시 권혁소 맑은환경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매립지 운영 중 발생한 자산은 매립지에 반드시 재투자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였으며 또한 14일에는 인천시청을 방문, 신동근 정부부시장을 만나 일방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매각 대금을 세입 처리하려는 서울시에 대한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서구주민의 반발 여론을 전달하였다.

한편 의원들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기한을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부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고 매립 기한을 당초 예정대로 이행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지난 12월16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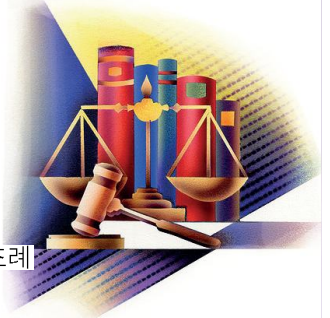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제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간담회는 서구의회 박형렬 의원의 주재로 추진되었으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 연대』 관계자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한 발표 후 참석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간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나, 시민단체에서는 도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향후 서구의회 의원, 집행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였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처리 안건



■ 총30건 : 조례안 16건, 예산안 2건, 결의안 2건, 기타 10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발 의 자 박 구 의원 외 12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정일우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보류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윤숙 의원 외 6인, **처리결과** 수정가결

경명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

발 의 자 박 구 의원 외 5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발 의 자 김진규 의원 외 10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발 의 자 박 구 의원 외 10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발 의 자 문천환 의원 외 8인, **처리결과** 원안가결

그 밖의 처리 안건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위원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자녀출산, 입양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2010 행정사무감사

제6대 서구의회 개원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전과는 다른 견제 기능 보여”

서구의회(의장 김영옥)는 구청 소회의실에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구청의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등의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여 정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사업의 투자성과 효과성을 높여 구민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에 대해 총 171건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의원들의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고 준비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기획홍보실(시정요구10건, 건의7건)

△구정소식지 배부방법 개선 및 구독률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 △구 홈페이지 강화를 통한 구정홍보 철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적극적인 홍보 등

총무과(시정요구 6건, 건의 6건)

△사회단체보조금의 균형 집행 △공무원 해외 연수의 내실 있는 운영 △통장 임명절차에 대한 기본지침 수립 등

인재육성과(시정요구2건, 건의 13건)

△영유아 보육기관에 대한 교육 경비추가지원 △거점형 영어교육 센터의 확충 △자립형 공립고 예산집행 부적정에 따른 집행 철저

재무과(시정요구 2건, 건의 5건)

△관용차량 교체방법 개선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철저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우선권 부여

세무과(시정요구 2건)

△구 금고 약정 출연금의 세입 계상 철저 △지방세 과오납금 관리 철저

민원봉사과(건의 1건)

△공무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경제지원과(시정요구 1건, 건의 9건)

△중앙시장 아케이드 하자보수 철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마련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 등

재난관리과(건의 4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재난대비 철저 △아파트 전기실 지상 설치방안 모색 △수방자재용 양수기 기종 변경 등

주민생활지원과(시정요구3건, 건의4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홈페이지 구축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금 지급 철저 △청년인턴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등

복지서비스과(시정요구2건, 건의6건)

△검단지역의 공공경로당 신축 방안마련 △장애인복지시설 관리 철저 △독거노인 지원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 모색 등

문화관광체육과(시정요구4건, 건의7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 △각종 체육행사 시 표창장 시상자 명칭의 일관성추진 △검단복지회관 체육관 증축 검토 및 대관료인하방안 마련 등

환경보전과(시정요구 4건, 건의 2건)

△공익사업의 민원 최소화 △환경오염 표시 전광판의 적정 설치 요망 △미세먼지, 이산화질소를 저감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

청소행정과(건의 2건)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제정 관련 서구의 입장 적극 반영 요망 △재활용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구에서 운영토록 계획 마련

건설과(시정 6건, 건의 7건)

△반복 민원 해결 방안 강구 △도시철도 2호선 전신주등 지중화방안 강구 △국공유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등

건축과(건의 4건)

△다세대 및 연립주거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운영 철저 △공사가 중단된 대형공사장 관리 철저 △검암1지구 다세대주택 불법 개조 관리 철저 등

도시개발과(건의 8건)

△검단구획정리사업 신속한 인수방안 마련 △루원시티 미 이주자 이주대책 방안 강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대처방안 마련 등

토지정보과(건의 1건)

△친환경 다기능 도로안내표지판 개선 방안 마련

녹지경관과(시정요구 5건, 건의 4건)

△석남약수터 계단 설치 개선 방안 마련 △조례 개정을 통한 서곶근린공원 운동장 유료화 추진 △전봇대 지중화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

위생과(건의 2건)

△약수터 수질 검사결과 관련 주민 홍보 강화 △맛고을 거리 관련 뷰티폴 헤어쇼 행사 추진 재검토 요망

교통행정과(시정요구 1건, 건의 5건)

△홈페이지 관리 철저 △주차 단속 스티커 부착 관련 사후조치 대책마련 △검단지역 견인보관소 신규 설치 방안 검토 등

교통민원과(시정요구 1건, 건의 4건)

△버스정류장 이전 설치 방안 검토 △관내 버스승강장 점검 및 관리요망 △도로위 시선유도봉 점검 요망 등

보건소(건의 3건)

△하절기 동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동과의 협력 강화 △가좌 및 석남권역 건강증진센터 설치 △금연클리닉의 적극적 홍보 및 교육 강화

동 주민센터(시정요구 3건, 건의 3건)

△자생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가좌IC 부근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철저 등

검단출장소(시정요구 1건, 건의 2건)

△검단3동 청사 앞 나대지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세무민원창구 공익요원 관리 철저 △제설차량 확보를 통한 재난대비 철저

시설관리공단(시정요구 6건, 건의 4건)

△검단복지회관 구내식당 운영포기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공영주차장 우천시 누수문제 조치철저 등



해외연수 후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장 | 김 영 옥

여행은 어떤 여행이든 간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삶의 활력이 된다.

금번 연수에서는 2014인천아시아 경기주경기장의 사후 활용실태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안모색,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추진사례 등을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연수대상국에 파견 되어 있는 대사관 및 국제화재단을 중심으로 기관 및 시설 방문을 추진하여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연수 첫째 날인 11월 8일 독일의 남부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를 방문했다. 프라이 부르크는 유럽의 환경수도라는 타이틀이 붙은 곳으로 어떤 곳인지 내심 궁금했었는데, 첫 인상은 작고 조용한 소도시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젊은 사람이 많고, 시내에 차가 별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역에는 굉장히 많은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었으나, 자동차는 주차된 곳을 찾지 못했다. 아마도 대학가가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기차, 트램, 경전철)과 자전거를 연계해서 이용하고 있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환경도시답게 고층건물의 벽면에 태양광 집열관을 설치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천연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이었다.

다음날인 11월 9일에는 두 번째 공식 일정으로 뮌헨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하였다.

뮌헨올림픽 경기장 내에 있는 축구경기장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기장내부 및 부대시설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 뮌헨올림픽 경기장의 경우 운영수익은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리모델링 공사추진으로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곳 독일인은 축구에 대한 열광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입장료 수입 및 부대시설 임대료, 공연장으로 임대료를 통해 거대한 당지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날인 11월 10일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다. 최근에 지어 진 최첨단 소각시설을 갖춘 파페나우 소각장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주황색의 깔끔함이 배어있는 곳이었다. 소각장의 시설관계자의 소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듣고 난 후에 소각시설의 각 공정사항을 견학하였다.

비엔나에서는 모든 쓰레기를 매립이 아닌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파페나우 소각장 외에 2개의 소각장을 더 갖고 있다고 했다.

소각으로 인한 발생하는 열에너지는 25,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50,000세대에 난방용 온수를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 곳 소각장의 경우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검출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매립연장을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인천시 간의 갈등의 중심에 우리 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소각기술을 개발(도입)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다음날인 11월 11일은 오스트리아 중앙부처인 농림, 환경, 수자원경영부를 방문 하였다.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그렇듯이 정부 청사라는 곳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가까운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농림, 환경, 수자원경영부는 오스트리아의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기후 보호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 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수자원 정책,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국가 중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 에너지 비율이 23.3%(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 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11월 12일에는 공식일정으로 체코의 태양광협회를 방문하였다. 국외연수 준비과정에서 체코의 태양광사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것 조사되었다.

태양광협회를 방문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체코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부주도의 발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기업의 투자로 시설설비를 갖추어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높은 구매조건으로 구입하는 정책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봉책의 정책은 정부 재정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정부를 위협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체코 정부에서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여 개인 혹은 기업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했던 장기간의 높은 구매조건을 낮추고자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혼선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정부(지방정부 포함)는 정책으로 국민(주민)

에게 말을 한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위정자의 판단의 오류로 인해 주민 불신의 사례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매우 높다. 의정활동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11월 13일, 공식일정 마지막 날은 프랑크푸르트 월드컵경기장 방문이었다. 전체관람석은 가변석을 두어 경기장의 활용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원업체에 대한 홍보는 축구장을 찾는 사람에게 부지불식간에 지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어, 수익사업에 대한 그들의 영업 전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로 지' 라고 하는 비즈니스룸이었다. 축구를 관람하기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기업체 및 단체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룸을 만 들어 2년간의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비즈니스룸에는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간단한 음료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주방을 갖추고 있어 생일 등 축하파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경기장의 개·폐형지붕은 비가 오는 우천시에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장을 찾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있었으며,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소음을방지할 수 있어서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연회동에 건축되고 있는 아시아경기주경기장의 경우 주변에 공원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벤트성의 기획공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면도 없지 않아, 개·폐식 지붕에 대한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리란 생각을 해 보았다.

지난 6박8일간의 동유럽 연수일정은 치밀하고 준비된 일정으로 기존의 구의회에서 진행하는 연수와는 차별을 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었다. 그래서 다소 무리한 계획으로 쉽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 돋보이는 연수였다고 생각을 해본다.



해외연수 후기...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 강 상 원

2010년도 복지도시위원회의 국외연수를 중점과제 중 본 의원의 연구과제인 「체코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요인 분석을 통한 저탄소녹색성장 지원방안 연구」를 위해 체코 태양광협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체코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태양광발전소 건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소는 2009년도 6월 기준으로 총 2046개소로 2008년도 대비 약 2/3이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체코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의 자료를 찾아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태양광협회는 체코대사관을 통해 섭외한 기관으로 체코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한 개인, 기업과 태양광설비 생산업체, 대학 등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기업으로 현재, 체코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태양광관련 이슈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기관으로 본 의원의 궁금한 점을 적절히 살펴볼 수 있었던 기관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체코는 유럽연합의 가입조건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 개인 및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열발전소에 생산한 전력을 높은 가격과 가격의 변동폭을 5%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성을 보장 하였으며, 특별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조치 등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지원은 당장의 발전소설비투자를 위한 예산은 절감할 수 있었으나, 매년 지출해야 하는 FIT(Feed in traff, 태양광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재정의 많은 부담을 주게 됨에 따라 현재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돌아서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소 투자자와 정부사이에 이권과 재정부담이하는 상반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됨과 동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기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투자자들의 도덕적해이로 비취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2009년 8.15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천명한 바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은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수력, 풍력, 원자력 등 화석 에너지를 배제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 가능한 에너지로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도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풍력에너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할 것이다.

이번 연수에서 알게 된 체코의 FIT(Feed in traff, 태양광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이 이미 예견된 정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투자 없이 당장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너무 무리한 인센티브를 약속함에 따라 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민들 사이의 불신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FIT(Feed in traff, 태양광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를 기시행한 바 있었으나, 체코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FIT(Feed in traff, 태양광발전 고정가격매입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정부시책이 RPS제도를 도입로 변경되고 있다. RPS제도는 화력발전소나 전력공사 철강업체들이 탄소배출을 하는, 탄소배출을 주원인으로 하는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해서 탄소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있으며, FIT(Feed in traff)제도 역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앞으로 정부가 그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의 믿음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언론에서 보는 서구의회

경기신문 2010년 12월 01일 수요일 018면 지역

서구의회 “주민 안정대책 세워달라”

제3차 본회의서 사회적약자 보호·야간 셔틀버스 개설 등 제기

민원지원 건수 증가·공업 밀집 영향 낙후지역 대책 요구도

인천시 서구의회(회장 김영옥)가 30일 본회의서 구정 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회장은 “인천시 서구의회(회장 김영옥)가 30일 본회의서 구정 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회장은 “인천시 서구의회(회장 김영옥)가 30일 본회의서 구정 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수도권일보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007면 인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서울시 지급향의

서구의회, 인천시 방문... 무 18년간 환경피해 시달린 주민들

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지급을 촉구하며, 인천시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인천신문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005면 사회

“매립지 매각대금 세입처리 안돼”

서구의회, 서울시 향의방문...지역 환원 촉구

인천시 서구의회(회장·김영옥)가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지급을 촉구하며, 서울시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회장은 “매립지 매각대금 세입처리가 안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기초일보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002면 초경

“기초단체에 재원 40% 부담은 과도”

“무리 추진됐던 기반 미비로 파행 우려”

서구의회, 인천시 방문... 무 18년간 환경피해 시달린 주민들

서구의회(회장 김영옥)가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지급을 촉구하며, 인천시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회장은 “기초단체에 재원 40% 부담은 과도하다. 무리 추진됐던 기반 미비로 파행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017면 메트로

“재투자 없는 환경에너지타운 반대”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주민 품으로 돌아오도록”

서구의회(회장 김영옥)가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지급을 촉구하며, 인천시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회장은 “재투자 없는 환경에너지타운 반대한다. 수도권매립지 주민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일보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011면 의회&공무원

김영옥 인천 서구의회 회장

인천 서구의회 김영옥 회장은 15일 오후 12시에 열리는 전·현직 의정 간담회에 참석해, 전직 의정들과 함께 시정이 해결해야 할 지역내 현안 시정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10.07 경도신문 - 서구의회, 아동센터 돕기 의견 청취
- 11.11 경인종합일보 - 편향되지 않는 울골은 신문되길
- 11.15 시민일보 - 의회&공무원
- 12.01 경기신문 - 서구의회 “주민안정대책 세워달라”
- 12.02 인천신문 - 소통과 비전, 그리고 끝없는 개선
- 12.03 중부일보 - 약자보호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을”
- 12.08 경기신문 - 서구의회 “준비된 행감”

경기신문 2010년 12월 03일 목요일 003면 정치

에너지 소비 줄이고! 경기장 효율 높이고!

● 저가에너지사업 성공 위해 선진국 견학 다녀온 서구의회

서구의회(회장 김영욱)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여 미국 에너지위원회(EEA)를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미국 에너지위원회(EEA)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에너지위원회(EEA)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견학은 미국 에너지위원회(EEA)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중부일보 2010년 12월 03일 금요일 006면 종합

“약자보호 위한 특별대책반 구성을”

서구의회 구성질의-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 촉구

인천시 서구의회는 최근 제170회 서구 구는 “개발주체인 LH공사와 인천시에서 요구한 바 실행이 잘 안 될 경우로 관심 최소화 하도록 했다. “가짜 1등 낙후하고 삶의 질이 저수준인 주민생활을 운영방안

경도신문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003면 정치

서구의회, 환경에너지타운 반대성명


“비신먼지 시달린 주민들”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결사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날 자리에서 의원들은 “하늘 좋은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지를 곁에 둔 20년간 서구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신뢰한 서구 주민들은 서문로와 수도권매립지공사, 환경부가 2016년 매립을 종료하고 공원을 조성할 것인 약속을 믿고 있었으나, 불행히도 저들의 전기가 아니라. 저들은 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으면서 환경 계획과 약속으로 우리들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종합일보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008면 기획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

경기·인천 등 수도권권의 종합일간지인 경인종합일보의 창간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인종합일보의 창간에 노력하신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신문 2010년 12월 02일 목요일 018면 오피니언

소통과 비전, 그리고 끝없는 개선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

우호내로 주위에 격양된 이사회(경영)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통과 비전입니다. 소통과 비전은 경영의 핵심입니다. 소통과 비전은 경영의 핵심입니다. 소통과 비전은 경영의 핵심입니다.

경인종합일보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008면 기획

“편향되지 않는 올곧은 신문 되길”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

경기·인천 등 수도권권의 종합일간지인 경인종합일보의 창간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인종합일보의 창간에 노력하신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신문 2010년 12월 03일 수요일 019면 지역

서구의회 ‘준비된 行監’

각 기관 부서별 문제점 정확히 지적 ‘협적’ 평가

일부 의원들 지역구 평가 ‘부적절’ 발언 ‘욕의 디’

인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간 열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 부서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준다는 취지로 ‘행적’을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지역구 평가 발언 및 집행부 자료 작성일 및 날짜 표시 미비 등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욕의 디가 남았다.

인천신문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005면 메트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시 항의방문

매각대금 ‘일방적 세입처리’ 비판

인천시 서구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한수위)가 인천아라뱃강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급한 것과 관련, 13일 서울특별시청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권혁소 서울시 시민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위치로 인해 지난 18년간 약학, 단지, 오배수 등의 각종 환경 피해에 시달려온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정협의를 할 것을 촉구하며 “세입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서구주민의 반발과 물리적 행사에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도신문 2010년 10월 07일 목요일 003면 정치

서구의회, 아동센터 돕기 의견 청취

조손가정 등 방과후 교육, 현실적 지원 확대 요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회장 김영욱)는 지난 5일 서구지역 아동센터 시설개선과 지원 확대를 위한 청취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손가정, 방과후 교육, 현실적 지원 확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영욱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인천광역시에서 조손가정이나 방과후 교육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조손가정, 방과후 교육, 현실적 지원 확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인천신문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005면 메트로

서구의회,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시 항의방문

매각대금 ‘일방적 세입처리’ 비판

인천시 서구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한수위)가 인천아라뱃강에 포함된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을 서울시와 환경부에 지급한 것과 관련, 13일 서울특별시청을 전격 항의 방문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권혁소 서울시 시민환경본부장을 상대로 수도권매립지 위치로 인해 지난 18년간 약학, 단지, 오배수 등의 각종 환경 피해에 시달려온 수도권매립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정협의를 할 것을 촉구하며 “세입처리가 이루어질 경우 서구주민의 반발과 물리적 행사에 불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2.1 경기신문 - 차기 아시안 게임 성공위해 선진국 견학 나선 서구의회
- 12.14 인천신문 - “매립지 매각대금 세입처리 안돼”
- 12.14 인천일보 - 매각대금 ‘일방적 세입처리’ 비판
- 12.16 경도신문 - 수도권매립지 매각대금 서울시 지급항의
- 12.16 경도신문 - 서구의회, 환경에너지타운 반대성명
- 12.17 기호일보 - “기초단체에 재원 40%부담은 과도”
- 12.20 인천일보 - “재투자 없는 환경에너지 타운 반대”

제6대 제1기 서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김영옥
(검암경서동, 연희동)

부 의 장



정일우
(신현원장,석남1,2,3동)

의회 운영 위원회

위 원 장



박 구
(가정1,2,3동)

간 사



문천환
(가정1,2,3동)

위 원



김진규
(검단1,2,3,4동)

위 원



박형렬
(신현원장,석남1,2,3동)

위 원



강상원
(가좌1,2,3,4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현주
(검암경서동,연희동)

간사



김진규
(검단1,2,3,4동)

위원



문천환
(가정1,2,3동)

위원



정일우
(신현원장,석남1,2,3동)

위원



문순석
(가좌1,2,3,4동)

위원



김병근
(비례대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신현원장,석남1,2,3동)

간사



강상원
(가좌1,2,3,4동)

위원



이종민
(검단1,2,3,4동)

위원



홍순목
(검단1,2,3,4동)

위원



박구
(가정1,2,3동)

위원



박형렬
(신현원장,석남1,2,3동)

위원



이윤숙
(비례대표)



전직 의장에게 듣는다

초대 서구의회 의장
문기현

이제 새로운 십일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를 기원드립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서구의회가
정말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구민을 위해 일
잘하는 의회,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을
찾아 가는 생활정치인으로서 지역발전과
지역구민에 대한 책임과 사랑으로 존경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원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
입니다.

선배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지역민원, 인
기에 영합하지 않는 견제, 집행부와 쌍두
마차의 역할을 자기의 일같이 처리하는
서구의회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己立立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곧게 서 있어야 남을 세울 수 있다는 말
입니다. 자신이 올바르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면 남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속담에 “거울은 먼저 웃지도 성내지도 않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청문회를 보면
해박한 전문지식과 능력보다 도덕성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먼저겠지요. 전직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머리는 빌릴 수 있지만
가슴은 못 빌린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
납니다. 노래가사에도 “A라는 사람도 사랑
하고 B라는 사람도 사랑했지만 다 똑같
더라, 진실한 가슴이 없더라.” 이 말은 즉
사랑과 진실을 강조한 가사라고 하겠습니
다.



“責人之心 責己, 恕己之心 恕人”이라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도 남을 꾸짖는 마음
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즉
화합과 소통은 용서와 진실이 바탕이 되어
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민 여러분!

구민을 대변해 주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구의회
의원들에게도 힘찬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
기 바랍니다.

잘 했을 때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시고, 잘
못했을 때는 질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서구의회가 발전하는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구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나날이
새롭게 발전하는 한해 보내시기를 기원합
니다.

다시 한번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서구민
여러분 및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좌1동 주민센터 개청



지난 12월 8일 가좌1동 주민센터 개청식이 열렸다. 이번에 개청된 가좌1동 주민센터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구청과 동화디벨로퍼(주)간의 신축청사 무상 기부채납 협약(2009.9.29일)에 의하여 준공된 것으로 기업이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메세나 정신을 실천한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청사는 서구 가좌1동 145-19번지(가정로 112번길 10호)에 위치해 있으며 2010년 1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였다. 청사규모는 대지면적 1,227.4㎡(386.41평), 건축연면적 2,150.39㎡(651평)이며 지하1층부터 지상4층으로 건립되었다. 지상1층에는 민원실, 동장실, 문서고가 있으며 지상2층부터 4층까지는 도서관, 컴퓨터실, 헬스장 등이 있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청식에는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장, 각급 자생단체장을 비롯한 가좌1동 주민들이 참석하였으며 분위기 고조를 위해 식전행사로 축하 풍물 공연 및 발전기원제가 있었다.

또한, 김홍진 동화기업(주) 대표이사, 문순석 서구의회 의원, 이훈국 前 서구청장 등이 청사 준공에 기여한 유공자들로 선정되어 공로패 및 감사패를 받았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최일선 대민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최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11년에 인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교육 분야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경제 분야

- 서민전용 대출사업 '햇살론' <신규>
-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신규>
- 국내인증획득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 분야

- 인천 어린이과학관 개관<신규>
- 취약청소년 상설 두드림존 운영<신규>
-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 운영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보건/의료 분야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신규>
- 필수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실시
-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및 관리시스템 운영

▶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
-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 할인 중단
- 도로명주소 사용

▶ 여성/가족/보육 분야

-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신규>
- 무상보육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 확대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실시
-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
-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필요경비 전액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운영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 사회복지/봉사 분야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신규>
- 강화 장애인복지관 신축<신규>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신규>
-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신규>
- 장애인합창단 운영<신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 지원
- 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 지속추진
-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 1급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 2급/3급 중복지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 무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계도/단속
-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행지역 확대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의무화
-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운영
-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완화
-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완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 세정 분야

- 감면 조례 규정 타 법령 이관에 따른 조례 정비
- 지방세법, 3개법으로 전문화/체계화
- 지방세, 유사세목 통/폐합으로 간소화
-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강화

▶ 식품/위생 분야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신규>
- 어린이 식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신규>
- 세계음식문화박람회 개최<신규>
-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확장 이전

▶ 노인/장사 분야

- 사랑의 안심폰 운영<신규>
-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부담금 지원<신규>
-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운영
- 인천가족공원 확대 조성

▶ 환경 분야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신규>
-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확대

▶ 소방 분야

- 119 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 상수도 분야

-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부과 제도 도입<신규>

▶ 기타 분야

- 지상파TV 인천 지역뉴스 고정프로그램 방영

서구명소를 찾아서

지난해 11월 19일 인천 서구 경서동 209-3번지에서 인천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개관식이 있었다.

1965년 경서동 녹청자 도요지가 발견되기 전에는 도요지가 일본에서만 두 곳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것을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것으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경서동에서 녹청자도요지가 발견됨으로써 일본은 세계 최고의 녹청자 발생지로서의 위치를 인천 서구에 넘겨야 했다. 그만큼 서구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은 서구 최초의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우리 녹청자는 앞으로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도요기술의 일본 유출 경로를 밝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녹청자는 양질의 고급 청자에 비해 그릇 표면이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보이지만, 일천년 전 서민용으로 제작하여 질박하면서도 독자적인 유색을 가지고 있어 다른 자기에서는 독특한 멋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자기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서구는 2002년에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을 이미 개관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녹청자도요지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장소가 협소하고 불편하였기 때문에 새로 사료관을 옮기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신축한 사료관은 지상 2층의 건물로 2009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에 공사를 마쳤다. 규모는 연면적 1,486.05㎡, 대지면적 4,700㎡이며 운영인력은 관장1명과 안내원으로 포함한 직원 5명으로 민간위탁(서구문화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

지상1층에는 도자기 및 녹청자 유물을 전시하고 도요지 모형이 있는 역사전시실 및 현대도예공모전 수상작 및 현대작품을 전시하는 기획 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실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일반체험강의실이 있고 만들어진 도자기는 시유실 및 토련실, 가스가마실을 거쳐 완성하게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건물 외부에는 녹청자도요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전통가마도 있어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도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녹청자 사료관 권영국 관장은 ‘서구의 녹청자 도요지는 과거 인천이 문화와 예술이 융성했던 지역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라며, 도요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서구만의 자랑거리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의전화 563-4341

인천 서구 녹청자 도요지 사료관



Q : 이번 새로이 개관한 녹청자도요지사료관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관장 : 총 1,400평의 대지 위에 건평 450평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역사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가 있으며 2층에는 체험실, 강의실, 가스가마실, 카페테리아, 사무실이 있고 야외체험마당에 전통가마와 야외조형물이 설치되어 규모나 내용면에서 종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Q :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사료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관장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 사료관이 문을 열 당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거기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유물을 수집해 전시하고 다양한 테마를 보완하여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 그런데 사료관이 조금 외곽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장 : 네, 사실 어린이나 관람객들이 찾아오기에는 그리 접근성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거나 단체 관람객들이 사료관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는 어떤 곳인가요?

관장 : 경서동 녹청자도요지는 고려시대 전기의 도자기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사료입니다. 이 가마터는 해방 후 국내 학자들에 의해 맨 처음 조사 발굴된 기념비적 유적지로 1965년 12월부터 1966년 5월까지 인천 시립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합동 조사를 실시해 고려시대 전기 녹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이 가마터는 우리 도자기 역사에서 녹청자의 발생과 공급, 수요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임이 확인되었습니다.

Q : 시민들 중 녹청자가 어떤 종류의 유물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관장 :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고려청자나 이조백자는 투명한 빛을 내고 표면이 매끈하나 녹청자는 모래나 흙이 붙어있어 그릇 표면이 거칠고 고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자나 백자가 왕실이나 상급관청, 대형 사찰 등에서 주로 쓰여졌다면 녹청자는 하급관청과 일반 서민들이 쓰기 위해 만들었으며, 그 대표적인 생산지가 서구 경서동과 해남 진산리 가마터입니다. 이 곳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대접, 접시가 많이 발견되었으며 병, 항아리 등이 조금씩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Q : 녹청자가 일본의 독자적인 도자기술이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녹청자의 역사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녹청자도요지사료관
권영국 관장

관장 : 가마터는 보통 경사져 있으며, 도자기를 굽기 위하여는 바닥이 수평이 유지돼야 하며, 그래서 도자기 밑에 도집이라고 하는 받침대를 설치하는데 이 받침대 모양이 말발굽처럼 생겼고, 이러한 방식은 경서동 가마터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일본에서만 발굴되어 이를 근거로 일본의 독자적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서동 녹청자 가마터에서 말발굽처럼 생긴 받침대가 발굴됨에 따라 이 기술은 우리가 먼저 사용하였고 후에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 학술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Q : 녹청자는 일반 백자나 청자를 굽는 과정과 다른가요?

관장 : 청자나 백자는 보다 섬세하고 깨끗한 자기를 만들기 위해 유약을 발라 구울 때 이물질이 곁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온도에서도 변형되지 않는 갑발이라고 하는 내화물로 만든 통안에 넣어 구웠으나 녹청자는 주로 서민들이 사용했고 대량 생산을 위해, 갑발 없이 포개서 구웠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Q : 박물관과 접목하여 추진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관장 : 유물을 수집하여 연구하고 전시하는 전통적 개념의 박물관 기능만으로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체험교육일 수도 있고 대보름 날의 전통적 쥐불놀이 행사일수도 어린이날 그들을 위한 퍼포먼스일수도 있겠지만 이모

두가 관람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구민들의 눈높이를 감안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Q : 어린이들에게 도자기 체험은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관장 : 요즘 어린이들은 TV, 컴퓨터 등 인스턴트 문화에 익숙해져 사고력과 창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이들에게 직접 흙을 빚어 접시, 꽃병, 잔들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메마른 정서에 감성을 심어 주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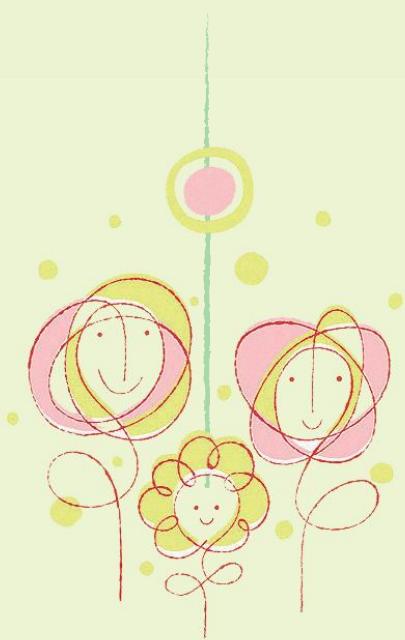
Q : 녹청자도요지사료관 건립이 인천과 서구에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관장 :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구 지역은 문화 시설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녹청자도요지사료관의 개관으로 여러 문화적 수요를 일시에 충족할 수 없겠지만, 역사적 가치가 입증된 녹청자를 인천 서구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검단 3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

Focus



검단3동(동장 양찬석)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은 부모가 아이와 손잡고 와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주민들도 지나가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2009년 12월 4일에 개관하였다. 현재 서구 내에 있는 많은 작은 도서관 중 하루 이용객이 300여명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평이다. 검단 3동 작은 도서관은 연면적은 131.0㎡로 7,000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70%가 유아·어린이용 책이고 나머지는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다. 지방자치 시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자원봉사자 2명이 오전, 오후 교대로 도서관 안내 및 책정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주민들이 와서 도서관의 청소 및 주변 정리를 하고 있다.

검단3동 작은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과는 달리 열람석이 없어서 아이가 누워서 책을 볼 수 있고, 엄마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편안하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다. 작은 도서관만이 가지는 친밀성과 접근성인 것이다. 첨단 시설로 무장한 대형 도서관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주민들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고 어린 꿈나무들에게는 햇빛과 물을 줄 수 있는 곳이다.



52 Seo-Gu Incheon Council





공무원 한마당

목로주점

석승택

저녁노을 긴 그림자
네온사인에 묻히고
말못할 사연들이 어둠을 밝힌다.

사람이 그리운 오늘의 끝자락에
뒤엉킨 발자욱이 한곳에 머물고,
깨알 같은 이야기가 시나브로 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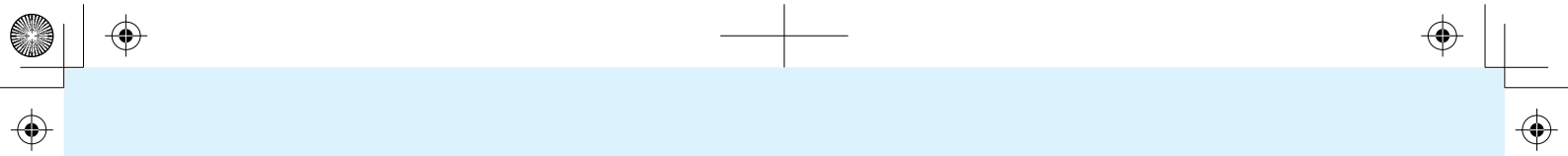
더듬거리는 손끝에 잡힐 듯 말 듯
목로주점에 흠여지는 속삭임들이
술잔을 휘감으며 날아오른다.

과대포장으로
세상을 품고 싶은 사람들과
회한(悔恨)을 마시며 절규하는 몸부림에
희미한 가로등마저 목이 메이고

취중(醉中)으로 돌아서는 우리는
그리고 나는

안개빛 그리움에 영혼을 저당 잡힌채
바람이 부는 곳으로 몸을 맡긴다.

새벽이 다가서는 오늘도,
목로주점 창가에 술한 사연들이 맴돌고
그곳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나를 놓아도
행복한 잠을 청하고 싶다.



자유기고

목욕탕 가자 아들아 ♡

청리문학 회장 / 김 영 환

우수가 지난지가 일주일이었으니 개구리도 긴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고 또 봄은 멀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은 겨울보다 더 매서워 큰 마음먹고 산 파카를 벗어 놓을 수가 없다. 초저녁잠이 없어서 매일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이면 어김없이 5시 반에 일어나야 하기에 주말이 되면 하루는 날을 잡아서 2~3시간 늦잠자는 그 시간이 너무 달콤하며 무척 기다려진다.

그러나 잠자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 사우나에 가는 것이 더욱 기분이 좋고 피로가 쉬 풀리는 듯 하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들 방으로 간다. 슬며시 방문을 밀치고 들어가 곧히 잠자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깨운다.

“기원아! 기원아! 어서 일어나야지, 아바랑 사우나에 가자.”

그러나 아들은 몸을 한 번 뒤척이고는 목욕가기 싫어서 잠자는 척 한다. 때면 이렇게 애를 쓰게 하고 게으름 피운다.

네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아바는 오늘도 한 판 씨름을 해야 든든한 아들과 목욕탕에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 조용히 아들을 깨울 생각에 잠긴다.

우리 아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목욕을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우나 가는 것을 싫어한다. 집에서 샤워는 혼자 잘 하는데 목욕탕은 싫어한다.

아바는 뜨거운 물에 쪽 들어가 피곤한 몸 녹이고 또 닦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아들은 왜 그럴까!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는 것을 싫어한다.

어느 아바는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닦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닦아야 하며, 그것이 싫으면 돈을 내고 때 밀어주는 분께 밀어달라고 해야 한다며 부러워하는데...^*^

나는 튼튼한 아들이 있으니 그런 어려움도 없으며, 아들과 둘이 사우나에 가면 서로 등을 밀어 줄 사람이 있어 좋고, 훌쩍 벗은 알몸을 내놓고 서로 피부를 접촉하며 평소에 부족했던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듩직한 아들은 웬지 아바와 목욕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우선은 때를 미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아바의 등을 밀어주는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휴일 날 아들과 목욕을 한 번 갈라치면 끌고 당기는 날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힘이 없는 아이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할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다.

“기원아! 목욕하고 오늘 점심은 모처럼 외식을 하자. 네가 먹고 싶은 것을 아바가 한 톱 쏠게 어서 일어나 목욕탕에 가자!!” 라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아바는 꼭 단잠을 깨우네요!” 하면서 오늘은 별 저항 없이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는다. ‘음! 아들이 오늘은 뭔가 먹고 싶은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네 식구 목욕탕으로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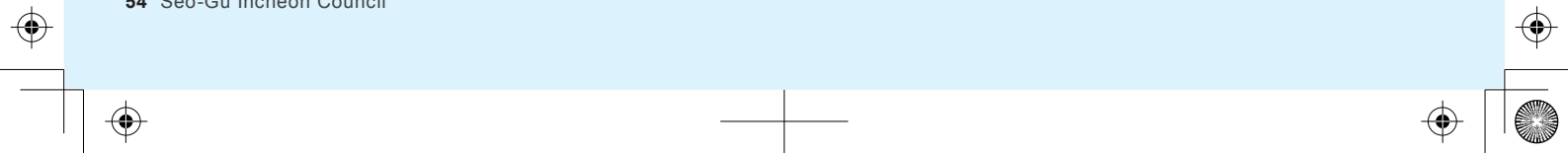
2시간 후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내와 딸은 여탕으로, 아들과 나는 남탕으로 향했다.

11개월 전, 아들이 군 입대 전의 이야기이다.

지금 건강한 아들은 2010년 4월에 입대하여 102 보충대를 거쳐 화천 7사단 GOP에서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있으며, 강추위와 싸우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작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 아들이 단호한 어투로 한 말이 떠오른다.

“아버님 어머니님, 아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유사시에는 적의 총탄을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한번 뿐이니깐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던 말이 귓가에 쟁쟁하다.

이 아침에 문득 아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을 지글지글 구워서 상추쌈에 싸서 같이 먹고 싶다. 땀방울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 환하게 웃는 아들이 정말 보고 싶다.





건강 상식 10가지

1. 음식은 10번이라도 씹고 삼켜라
의사들이 말하는 것 처럼 30번씩 씹어 넘기려다 세 손가락 넘기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10번이라도 꼭꼭 씹어서 삼킨다.
고기를 먹으면 10번이 모자라겠지만 라면을 먹을 때도 10번은 씹어야 위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다.

2.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한다.
두뇌는 정밀한 기계와 같아서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점점 더 빨리 낡는다.
공과금 계산을 꼭 암산으로 한다든가 전화번호를 하나씩 외우는 식으로 머리 쓰는 습관을 들인다. 일상에서 끝없이 머리를 써야 머리가 '늙'이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켜라.
아침에 눈을 뜨면 스트레칭을 한다.
기지개는 잠으로 느슨해진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분을 맑게 한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습관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매일 15분씩 낮잠을 자라.
피로는 즉시 풀어야지 조금씩 쌓아 두면 병이 된다.
눈이 감기면 그 때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 억지로 잠을 쫓지 말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인다.
15분간의 낮잠으로도 오전 중에 쌓인 피로를 말끔히 풀고 오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

5.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가라.
현대인의 불치병, 특히 주부들의 고민거리인 변비를 고치려면 아침 식사 후 무조건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로 오라는 '신호'가 없더라도 잠깐 앉아서 배를 마사지 하면서 3분 정도 기다리다가 나온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 버릇을 들이면 배변 습관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6. 식사 3~4시간 후 간식을 먹어라.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다.
점심 식사 후 속이 출출한 즈이면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거리로 속을 채워 준다.
속이 완전히 비면 저녁에 폭식을 해 위에 부담이 된다. 그러나 점심을 배부르게 먹고 오후에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또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 일뿐, 매끼마다 한 손가락
만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을 들인다.

7. 오른쪽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 있을 때, 그 자세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자세로 있으면
가장 빨리 숙면에 빠질 수 있고 자는 중에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8. '괄약근 조이기' 체조를 한다.
'괄약근 조이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건강 체조다.
출산 후 몸조리를 할 때나 갱년기 이후 요실금이 걱정될 때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
바르게 서서 괄약근을 힘껏 조였다가 3초를 쉬고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한다.

9. 하루에 10분씩 노래를 부른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른다.
듣지만 말고 큰 소리든 작은 흥얼거림이든 꼭 따라 부른다.
노래 부르기는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대인 기피나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 정신과 치료에도
쓰이는 방법이다. 평소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습관은 마음을
젊고 건강하게 한다.

10. 샤워를 하고 나서 물기를 닦지 말아라.
피부도 숨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샤워를 하고 나면 수건으로 보송보송하게 닦지 말고 저절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둔다.
샤워 가운을 입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시간에 피부는 물기를 빨아들이고 탄력을 갖게 된다.





중 · 소 · 기 · 업 · 정 · 보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서도 관내 중소기업 정보(www.ccmsew.or.kr)를 게재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사명	대표자	주생산업	업체 주소	전화번호	fax
(주)영인정공	최순철	주방용품제조업	왕길동 52-2	566-2685	566-2687
지원씨븐(주)	이영관	휴대폰부품,사출/도금	석남동 223-541	583-7290	583-7297
대명금속	이하관	Screw,나사,전자부품	당하동 661-4	563-6001	563-6004
세명강업(주)	강준식	금속제품 도매업	당하동 828-6	568-9918	569-2229
신촌스텐	김성태	금속제 식탁용품외	가좌동 570-34	583-4368	583-5786
아하정보통신(주)	박승일	통신설비/유지보수료	석남2동 538-33	578-0077	583-3539
형제코팅(주)	한성규	목재보존,방부처리 등	오류동 1500-3	565-1920	563-8203
한신엘리베이터(주)	김영찬	승강기 제조업	오류동 486-1	568-6546	568-6548
은성악기(주)	안용수	전자악기 제조업	석남동 223-202	577-4171~3	577-4174
한미건설사	박종호	금속문,창,셔터 등	오류동 434-220	563-0902	563-4886
정원금속(주)	정광록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왕길동 196-6	562-8530	565-0331

회사명	대표자	주생산품	업체 주소	전화번호	fax
상봉화학	이필하	창호.건축자재.생활용품	대곡동 657	562-6266	563-3166
한성산업	황인식	금속거울,시계 등	가좌동 162-14	579-0733	579-0739
기현몰드테크	김정학	금형,사출	마전동 516-16	565-9139	564-9431
현대합성	이금로	하이샷시 등	원창동 산38-2	581-1133	577-2023
기현정밀공업사	김정삼	금형제작 및 사출	마전동 516-16	565-9139	564-9431
건우로기계공업(주)	박병웅	산업용 오븐,노 등	오류동 434-336	564-0400	563-0610
영신주물	이우용	선철주물 주조업	경서동 363-173	561-6161	561-4723
(주)휠링컴	이미경	전자부품	경서동 350-263	568-5507	568-5510
에이스특수공업(주)	이완진	컨테이너	오류동 1511-1	562-8066	232-0482
한양엔지니어링	서용식	철구조물	대곡동 669-2	563-0124	562-3686
대경정밀	김영자	P.C.B 프레스펀칭 등	석남동223-399	572-4142	577-4142
광진실업	최광은	섬유제품 제조업	가좌동 158-8	582-4147~8	582-4149
(주)에스피에스	신승현	승강기,주차설비 건설 및 제조	당하동 502	541-0030	541-0037
(주)태화물산	심혜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오류동 404	562-7550	564-7550
은성기계	박동석	소음기,화학철타,동제품제작	가좌동 291-13	584-9691	583-8695
한성금속	정강섭	건축내·외장재	당하동 625-1	563-2257~8	563-2259
(주)대광테크	이한성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1628	031-996-2311	031-996-1924
신한테크(주)	마경훈	전자제품frame,Bracket 등	가좌동 574-35	577-8789	576-8160
일흥정밀공업	박창재	자동차, 전자부품 등	가좌동 178-295 우림테크노밸리 51동	576-5959	576-0052
신화산업	이재연	주방가구 도어 등	가좌동 173-120	584-0571	584-0576
현대엔지니어링	박만희	호이스트 크레인	원창동 75	577-9890	578-9890
(주)순환골재협회	이종백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왕길동 63-7,12	565-9110	565-9117
태양식품	임종빈	수산식품훈제,조리 등	마전동 531	568-7300	568-7302
덕원정밀	김영찬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경서동 680-2 서부공단 8BL 5LOT	565-6525	565-6526
(주)에이프러스산업	박래권	제조(목상자외)	오류동 410-115	567-1691	567-1697
페트라플랜트	김현태	철구조물,철강재판매	당하동 범성빌딩 3층 302호	562-9963	562-9964
(주)유진산기	최수용	소방펌프	가좌동 178-29	575-2538	575-7497
코비코(주)	김종호	일반무역업,원자재	오류동 434-370	575-2538	568-8116

회사명	대표자	주생산품	업체 주소	전화번호	fax
대성금속	강현수	볼트전문	마전동 524-3	568-5778	568-5330
성진에스아이씨(주)	김현복	방음벽제작설치 등	마전동 33-1	567-9907	562-2269
(주)에스씨리싸이클링	최동수	재생용 재료 수집 등	경서동 685-1	561-0873	561-0874
신성기업	안종길	접착제	오류동 1516	563-6636	564-6687
(주)세화기연	김승삼	내마모제품 하드페이싱	오류동 434-187	233-5585	568-5468
부덕실업(주)	김원택	상수도자재	석남동 223-203	574-3361	574-3365
(주)그라미	권기호	미장합판, 화장실칸막	석남동 223-646	583-2096	583-2098
용문정공	여양구	Gundrill, BTA Head, Tube 등	가좌1동 173-316	583-8050	583-8084
(주)용호종합건설	권순호	종합건설	심곡동 240-15 2층	567-2914	567-2619
(주)동서오피스	길병원	사무용가구	가좌동 178-42	581-1986	572-1986
한국본산(주)	고기창	밸브	금곡동 116-11	568-2745	568-2747
유성기계제작소	유승국	주물공장자동화 등	경서동 696-6	566-1700	566-1702
부송목재	송춘근	목재도소매	당하동 592-3	563-4323	563-4324
쌍용원목탁자	김상해	원목탁자, 메트리스	당하동 497-3	563-5063	563-4324
(주)선명테크	류덕선	사무용파티션전문제작	대곡동 661-1	565-0422	565-0424
공주식품(주)	윤치유	식품 (야채, 김치)	대곡동 644-3	565-3577	565-3576
세기라이너	이재원	자동차 엔진용 부품	가좌동 178-220	572-6237	572-7574
(주)앤제화	안시노	신발 제조업	연희동 740-13	561-0020	562-2155
(주)인바이어플랜텍	윤병돈	토양오염 세척 등	석남2동 650-41	571-0957	571-0958
명성산업사	김성기	유로폼 가공기계	왕길동 1	566-6829	563-4307
(주)평안석재	이태영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오류동 434-174	564-7933	02-2631-2504
에이테크산업	한영동	이·미용기구제조	경서동 673-46	565-0960	565-0955
(주)대유금속	김춘심	스텐 및 특수강	경서동 684-10	567-5804	567-5825
(주)대유	김길호	레미콘, 아스콘	석남동 223-523	584-5151	584-9300
동진전기조명(주)	조성란	가로등주	가좌동 173-396 3층	031-989-2471	031-989-2473
어스그린코리아	박용순	가로수보호대	경서동 372	567-5866	567-5805
(주)인광환경	이상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등	오류동 1536	563-3114	565-2114
삼경개발(주)	황한분	골재생산, 광업 등	당하동 744 2층	887-2426	887-3287

회사명	대표자	주생산업	업체 주소	전화번호	fax
(주)에스텔라	이종완	침구,수예품,커튼,블라인드	석남동 223-38 인천 테크피아 가동 402호	576-8245	576-8240
재영엔지니어링	황경욱	주차설비 제작설치 등	오류동 1517-2	567-1478	567-1479
우진월시스템(주)	김용우	샷시	당하동 607-2	566-2166	566-2163
지산개발산업(주)	지순용	그레이팅	가좌동 570-44	561-0303	561-3586
디에이치종합건설	김동희	건축공사업	심곡동 278 화성빌딩 2층	562-0417	569-0416
D.S자원	김춘수	고철,비철수거	불로동 639-2	568-1233	567-0979
(주)덕성그린텍	조덕형	폐수처리 약취저계설비 등	부평구 청천동 425 우림 라이온스밸리 C동 1201호	623-5070	623-5072
(주)금호글로벌	홍진욱	메달,뺏지,기념패	원창동 382-62	571-2370	578-2370
(주)엘엠	이원중	세대 조명기구,터널등기구	가좌동 541-7	662-4926	662-4927
대성종합기계	황해석	산업기계(환경설비)	오류동 1516-4	562-0738~9	562-0740
(주)제일위생	정해항	성인용 기저귀	오류동 434-213	567-9591	567-9594
(주)안성금속	홍성철	알루미늄압출형기	왕길동 196-5	566-7676	564-5743
이전시스템(주)	문희광	냉난방 설비업	석남동 239-38 인천 테크피아 나동 615-2호	582-4800	582-4812
케이원	강봉규	니켈 각질 제거기	가좌동 180-191	579-3605	579-3606
신평철강산업(주)	강신평	철강 도소매	오류동 410-27	564-6251	564-6298
유주산업	소연실	소방기구	오류동 1517	562-8338	562-8329
화성헬스케어	라훈환	병원용품 제조,무역	신현동 124-2	579-6076	579-0454
태광산업	이찬주	가공 및 기계제작	불로동 582	568-9032	568-9093
한덕철강(주)	김성찬	무소음트렌치,철강재 등	당하동 660-6	568-0592	568-0595
(주)대인랜드	문현영	종합건설 및 재테크기업	마전동 683-8	563-7982	563-7984
제니스가구	김영문	가구	가좌동 178-74	527-7383	572-7384
(주)하도	옥평권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가좌동 530-2 한국산업단지공단5단지	583-6321	583-6329
(주)미트아트	김광호	돼지왕갈비,목살	가좌동 589-28	575-1266	571-0686
(주)정성화스너	박영길	볼트, 리벳트	경서동 681-1 서부공단내 5블럭 3롯데	564-5402	564-5404
삼화이엔지	조규섭	집진기	가좌동 560-27 제4동 제1,2층 108호	577-3960	577-3963
(주)세림피엔지	진영길	박스,포스터,선물세트	금곡동 651	567-9941	567-9943
세계철강(주)	윤이노	철판도소매및제조	석남동 223-728	571-7936	571-7939
예지산업(주)	가봉섭	자동차 부품의 금형	가좌동 173-220	571-5758	574-5758
세창물산	송세현	의류,공구외	가좌동 602-17	862-0036	865-5508